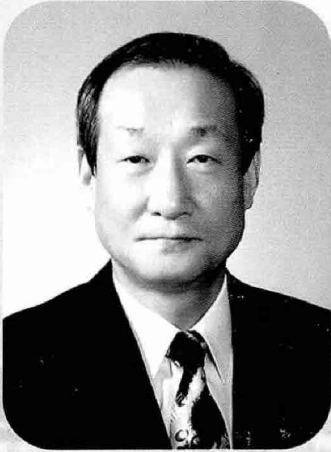


“성장 발전을 위한 대전환”의 원년이 되도록



대망의 200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화려하게 시작되었던 뉴밀레니엄의 첫해가 역사 속으로 저물고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고 신사년(辛巳年)의 새해 아침을 맞아 「防災와 保險」 애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에 우리나라는 빠른 시간 내 IMF위기를 극복하고 9.3%의 고도성장을 이룩하기도 했지만, 사회적 갈등으로 적지 않은 혼란도 있었습니다. 반세기 동안 갈라져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빙의 무드를 맞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은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 뒤에는 의료대란, 경제위기 재발 등으로 인한 국민의 시름 또한 컸습니다.

우리 협회도 '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정부의 경영혁신지침에 따라 단행된 구조조정을 통하여 조직의 존립기반을 다지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힘겨운 자구노력으로 지난해를 보냈습니다. 그 동안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우리는 총 83명의 정든 동료들 떠나보내야만 했는데,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조직의 생존, 발전을 위해 32명이 개인적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더불어 조직개편 및 제도혁신, 자체수입실적 증대에 매진한 결과, 우리 협회가 안고 있던 취약한 재무구조와 기형적 조직구조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광속으로 변화하고 있는 대변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전문가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은 스피드와 핵심역량을 갖춘 슬림화된 벤처형태의 회사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협회도 그러한 기업 형태로의 변모가 요구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내부혁신과 방재분야의 선도적 기술력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보험요율의 본격 자율화와 외국보험사의 국내진출에 따른 경쟁심화로 손해보험회사의 수지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염려와 함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을 둘러싼 사회적 분위기가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는 긍정적 측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2001년에는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므로, 우리 협회가 항구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대전환하기 위해 전 임직원의 역량을 총 집결해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협회의 조직기반 확충과 큰 도약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구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동적인 협회 문화를 능동적으로 바꾸어 고객의 니즈를 열정적으로 창출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원사로부터 출연받는 비교적 안정적인 여건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타적이고 수동적인 문화가 적지않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조직이든 스스로 자생력을 높이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로 급변하는 현실을 인식하고, 우리 자신이 나서서 고객의 니즈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고부가가치의 수입원을 창출해내는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자세와 고객제일주의의 자세로 업무에 임할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분야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여 우리 협회가 최고의 전문가 그룹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조직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협회가 내세울 수 있는 주된 것은 임직원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력이며, 협회의 성장 발전은 개개인의 머리와 손발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노력하는 직원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부여토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임직원 스스로가 부단한 자기계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여 협회가 우리나라의 방재산업분야에서 고급 두뇌집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식 정보화사업을 가속화하고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함으로써 협회의 핵심역량을 공유하여 튼튼한 전문가그룹으로 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바야흐로 지식정보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정보화사업을 협회의 핵심전략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직 내 산재한 각종 지식정보와 기술을 발굴 창출, 공유 및 활용을 골자로 한 지식기반 전략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정보화사업이 진척됨에 따라 앞으로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재서비스의 품질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기술용역사업의 신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防災와 保險」 애독자 여러분!

우리 협회 임직원 모두는 올해를 “성장 발전을 위한 대전환”의 원년이 되도록 더욱 분발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협회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계속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1년 동안에도 협회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元月

이사장 오 상 현